

패턴이란 무엇인가?

회별로 된 기출문제집을 펼쳐보면, 수능시험에서 요구되는 사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 정형화되어 해마다 꾸준히 반복 출제되는 양상을 띠니다. 물론 매 해마다 문제의 순서의 선후 관계는 좀 다를지 몰라도, 문제에서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 묻고자 하는 발문이 꾸준히 반복됩니다.

이것은 평가원에서 학생을 평가할 때 예측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문제를 전형적으로 출제하기 시작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이것을 최대한 '구체적이지 않은' 수준에서 분류한 것이 패턴입니다.

좀 더 쉬운 이해를 위해 예를 들어본다면, 영어 영역에서 지문의 '소재'는 수학에서의 '유형'과 동일합니다. '과학'을 소재로 한 지문은 수학에서 '역행렬'을 활용한 유형과 같이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다릅니다. 영어 영역에서의 '빈칸 추론'은 수학에서의 '행렬 Γ 나 Δ '와 같은 형태와 같습니다. 이것이 패턴과 유형의 차이입니다. 기존의 유형으로 나누는 문제집들의 최대 단점은 문제 유형이 문제 단위와 무관하게 분류되었기 때문에 유형별 문제집을 풀어도 기출분석을 따로 해야 했다는 점과, 유형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공부할 때에는 쉽게 풀리지만 시험장에서는 어느 유형인지 몰라서 문제에 말려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패턴'은 '수능에 출제되는 문제의 단위'로 분류했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도 패턴화를 언제든지 느끼고 적용할 수 있고, '고정된 풀이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패턴의 체화와 익숙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패턴화'를 했음에도 열려있는 사고를 지향하는 방식의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패턴을 체화하면, 수능 시험에 출제되는 거의 모든 문제는 '전형적인' 뻘한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며, 시험장에서 혹여나 한두 문항 신유형으로 느끼더라도 이미 나머지 문제들이 전형적이고 쉽게 해결된 상태이고, 거기에 더하여 그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이 교재에서 제시하고 있는 해결책을 중심으로 차분한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패턴'을 체화하는 것이 수능 시험의 전부는 아닙니다. 따라서 이 교재에서는 '패턴'과 더불어 패턴 외적으로 시험장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내용을 Intro 1~3과 개념편, 그리고 이렇게 글로 써놓은 칼럼들을 토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하듯, 이 교재에는 개념학습이 끝난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이제 그것들 중 메인요리라 할 수 있는 패턴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